

01 목회권면

풍성한 이 가을에 성도들께서는 영적 열매를 맺도록 예배, 기도, 성경읽기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02 추수감사절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0월 27일(주일)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 추수감사절 전단지를 가져가셔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례상박스, 1층 입구에 박스에 자율적으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결손가정, 홀부모가정, 취약가정등, 내용: 생필품등

(3) 민속놀이 신청자 접수, 10.26(토)까지 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종목:제기차기(1인), 윷놀이(2인 1조)

상품:1~4등 및 참가상

(4) 디지털 사진전 응모

대상:전교인, 출품내용:자녀 관련 사진, 상품:1~3등, 참가상, 카페 및 복도에 전시

(5) 감사나무에 감사내용 걸기

대상:전교인, 시상: 감사내용 중 복된 내용에 대하여 상품 증정

03 성례식

2019년 하반기 세례입교예식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정에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10.30(수)까지	사무실
교육	11.2(토) 오후 2~4시	가브리엘(1층)
문답	11.9(토) 오후 2~3시	가브리엘(1층)
세례·입교 선포식	11.17(주일) 3부 예배	본당(3부 예배)

04 젊은가정모임

오늘부터 젊은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식사와 교제가 있습니다.

대상 : 45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분.

05 새가족교육

새가족교육 3주 차 교육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새 가족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을 배워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 : 4층 도서관, 시간 : 12:50~1:40

06 등산모임

일시 : 11월 2일(토) 오전 10:00(교회출발)

장소 : 남한산성산행, 회비 : 2만원 (산행 후 식사 3시간 소요)

차량 및 식사 예약을 위해 참석하실 분은 늦어도 10월30일(수)까지 김학수 집사 (010-5714-8131)에게 꼭 연락 바랍니다.

■식당봉사

- 10/20 : 5지역(조옥순) 10/27 : 6지역(장복실) 11/03 : 1지역(이현경)
- 11/10 : 2지역(이선옥) 11/17 : 3지역(최현숙) 11/24 : 4지역(김미숙)

모임안내

1. 제직회&공동의회

- 날짜: 10/20(주일)
- 장소: 본당
- 시간: 3시10분(제직회),40분(공동의회)

◎헌신예배순서

- 11월 10일 문화선교학교
- 11월 17일 남선교회
- 11월 24일 여성교회

2. 한나여성교회 아나바다

- 날짜: 10/20(주일)
- 장소: 카페테라스 앞
- 시간: 오전9시~오후3시

◎공동기도제목

-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 2. 해외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하여
-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 4. 바나바 사역과 새가족 정착을 위하여
-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지난주 설교 말씀

제 목 : '가을에 누리는 풍성한 삶의 비결' ⑤ 안식하라 (마11:28-30)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사업을 잘하려면 사업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들의 짐에는 죄악, 율법, 육신의 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불편한 관계를 갖게 하는 짐은 죄악의 짐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부담되는 짐은 기대에 대한 짐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성격, 기질, 성품과 관계없이 다 오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면 얽매어지보다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려 감격과 기쁨으로 참 예배로 헌신케 됩니다.

"쉬다"의 어원은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 나아오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는 쉼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쉼도 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부모, 양아, 아빠의 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품을 수 있는 포근함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쉼은 있는데 오히려 품어줄 수 있는 서로의 품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야 하는데, 아이들은 따로 늙니다.

눅15장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집을 나간 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맨발로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잔치를 엽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만 풍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늑대와 이리의 위협에서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양들은 위험할 때 큰 소리로 울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를 소리쳐 불러야 합니다. 목자만 나타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우리가 약의 세력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한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참평안, 진정한 쉼은 목자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많이 먹고 그늘에 있다고 진짜 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세상 영동한 데다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 68: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표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5:7)

해외 선교	이중부선교사(캄보디아), 바탈(가말칸-함선교회), 키르키즈스탄(김진수-류선혜), 요르단(임기정-이해정), 브라질(오베르도-이선영), 캄보디아캄똥초낭지역(프놈교회), 톨라잉뽀야교회-꼭쓰다오교회-뜨리빠예교회)
국내 선교	대원교회(최경순), 비전명성교회(임순철), 선한빛교회(박광열), 우이도교회(김종균), 동리교회(허두자), 월드비전교회(김성영), 선공교회(경현채)
기관 선교	이삭선교회, 명목회, 엔젤비전아카데미, 아프리카선교회, GH선교회